

진관동 이야기


진관동 지도

진관동 이야기에 나오는 장소들



여는 글

진관동 이야기 사용설명서



북한산 국립공원

진관동은 북한산을 동쪽에 두고 북한산의 기를 받으며 500년 전에 형성된 오래된 동네다. 진관동 어디서나 북한산을 볼 수 있는 동네, 역사 문화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 은평구에서도 토박이들도 많이 사는 동네였다.

한양주택에 살았던 한종만 씨는 “개조한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 앉아서 백운대를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진관동(津寬洞)은 천년고찰 진관사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진관사를 중심으로 뒤쪽은 내동, 앞쪽은 외동이다. 1973년 이전까지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속하다가 1973년 서대문구로 편입되면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었다. 1973년 이전에는 박석고개에 해태상이 있어 서울시계를 나타냈다.

현재 진관동 면적은 11.52km²로 은평구 전체 면적의 38.7%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동이다. 5만 여 명, 16,419가구가 산다. 2004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인구가 약 2만 명이었으니 그때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진관동은 은평뉴타운 개발과 함께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다. 1965년 시작해 40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코우호쿠 뉴타운의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처럼 주민이 공동 설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만들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어떤 마을,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찬찬히 살피면서 가자는 바람은 성과주의와 속도전 앞에 맥을 못 추었다. 눈 깜짝할 새에 깡그리 헐리고 새 도시가 그려졌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삶도, 생활문화도 강제로 해체되거나 사라졌다. 그 자리에 아파트 숲이 남았다.



창릉천에서 바라본 북한산. 왼쪽은 2005년

개발 직전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 좋아 진관동을 찍기 시작했던 강홍구 사진작가는 “복잡한 감정이다. 그 동네 살진 않았지만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애정이 생겼다. ‘장소에’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남의 동네처럼 보이고 낯설다. 원주민도 그런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구 사진작가의 ‘은평뉴타운 연대기’ 사진 슬라이드를 보고 있으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인다.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도 아프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을 보면서도 눈물이 난다.

강 작가는 “사는 동안 33번 이사를 다녔다. 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보지 머무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동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이야기가 흐를 때 온전하게 그 의미를 갖는다. 진관동 마을 이야기를 담으려고 찾아왔다고 하자 “왜 이제야 왔어요? 진즉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원주민도 있었다. 진관동 마을 이야기는 더 일찍 시작되었어야 했고, 마을을 품은 개발이 되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진관동 마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까닭이다.

이게 첫걸음이 되어 은평뉴타운에 들어와 살며 새 주민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또 다른 원주민이 될 게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싶다.

진관동이야기

진관동 지도 | 진관동이야기에 나오는 장소들 2

여는 글 | 진관동이야기 사용설명서 3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기자촌의 추억 10

옛길처럼 정겨운 동네 아저씨 14

주민이 그린 손지도 20

30년 진관동 동네를 누빈 전파사 아저씨 22

진관동 터줏대감, 15대가 산 원 토박이 25

옛 동네 모습 찾을 수 없어 아쉬워 28

물푸레, 그 섬에 가고 싶다 31

3대가 진관동 토박이 가족 37

“폭포동에 내 손으로 신혼집 짓고 여태 살았지” 42

마을과 자연이 준 풍요로움 되찾고 싶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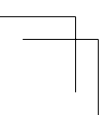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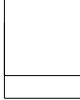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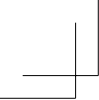


새로 등지를 튼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 은빛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연 금암문화예술제 56
-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육아 공동체 - 숲동이 놀이터 이야기 64
- 못자리골 생태연못 옆 물푸레 북카페 71
- 진관동 마을 주민이 만든 '은뉴 밴드' 76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 북한산 자락에 세 진관이 있었으니 80
- 우리동네 산,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말산(荊茱山) 84
- 도심 속 옛터, 굿당 금성당 94
- 화의군, 이곳에 묻히다 98
- 구파발을 아세요 100
- 밭독길 지나 만나던 탐골 자씨각 불상 102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기자촌의 추억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에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내 남편과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나의 고향은 기자촌이라는 동네다.

우리 집이 기자촌에 맨 처음 이사 갔을 당시 주소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였다. 초등학교 때 서대문구 진관외동이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은평구 진관외동이 되었다. 사실 기자촌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가 1969년에 무주택 기자들을 위해 북한산 한 자락에 조성한 주택조합단지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이었다. 70년대에 신문사 기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우리 가족도 기자촌에 살았고 내가 대학2학년 때 이사 갈 때까지 유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진관외동 중에서 154번 버스 종점이 있던 곳 위쪽으로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동네가 기자촌이었다. 행정구역상에는 없는 기자촌이라는

이름이 무슨 연유인지 154번 버스 옆구리와 이마에 붙은 안내판에 커다랗게 써있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동네라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은 긴 오르막길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언니와 집으로 가는 길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스무 걸음이나 서른 걸음씩 가방 들어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언덕길 중간쯤에는 지금도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시멘트로 둥글게 만들어 놓아 의자는 아니지만 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거기 앉아 가쁜 숨을 돌리며 잠깐 쉬곤 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산 사이로 논과 밭이 있고 오밀조밀한 동네가 보이는 풍경이 지금 생각하면 꽤 운치있었을 테지만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힘들게 올라다녀야 하나, 불평도 많이 했던 것 같다.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철거 중인 기차촌 모습

기자촌에는 오른쪽 길, 왼쪽 길, 중간 길이 있었다. 우리집은 동네에서 제일 뒤편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는 게 가장 빨랐지만 중간길은 집들 사이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고 왼쪽 길에는 방앗간, 문방구, 잡화점 같은 가게들이 있어서 그날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은 길을 골라서 집에 돌아오곤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는 인적 드문 오른쪽 길이 무서워서 멀리 돌아서라도 왼쪽 길로 오곤 했다. 주택지 위쪽으로는 바로 야산이었다. 산길을 걸어 약수터로 이어지는 길도 있었는데 자주 가보진 못했다. 그보다는 동네 옆으로 빠지는 골목을 따라 진관사로 이어지는 사잇길이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바람이 선선히질 무렵 엄마랑 형제들과 다니던 산책길이었다. 기자촌을 떠나서 산 세월이 기자촌에서 산 세월보다 훨씬 긴 나이가 된 지금도 내가 꿈에서 보는 집은 항상 그 동네의 그 집이다.

기자촌이 만들어질 때 1평당 3천원이었던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2천원에 토지를 매입해 특혜분양 시비가 일기도 했었다던데 그런 시비가 있었다 해도 바로 무색해졌을 것이다. 분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1971년에 동네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이다. 기자촌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은 그럴 줄 알고 생겨난 거였을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울시내의 모든 곳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쌍전벽해의 변화를 겪는 동안 기자촌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므로 30년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촌동네로 남아있었다. 내 기억에도 우리집 뒷마당에 작은 헛간을 만들었다가 그린벨트에서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지붕을 부

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다. 집 마당에 조그마한 밭을 만들었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자 너무 분통이 터져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고 구류 며칠 사셨다는 동네 아저씨도 계셨다.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금 하나 경계 밖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는 동안 홀로 외딴 섬인양 낙후 지역으로 30년간 남아있던 동네. 그린벨트는 그토록 완강했기에 나는 세상 다른 곳이 다 변해도 기자촌만은 내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천년만년 남을 줄 알았다. 언제든 내 아이를 데려가서 여기가 엄마가 심부름 가던 가게, 저 골목에 있는 집이 엄마가 다니던 피아노 선생님 살던 집,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2004년에 은평 뉴타운이 조성되었고 이제 내가 살던 동네는 더 이상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

은평뉴타운 계획이 발표되던 같은 해에 서울시 버스 노선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기자촌이라는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달고 다녔던 제일여객 154번 버스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기자촌이라는 이름은 이제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변치 않고 남는 것이 어디 있을 것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어디 내 어릴 적 살던 동네 뿐이겠는가. 꿈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된 내 고향 기자촌의 길고 가파른 언덕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땀 뻘뻘 흘리며 오르던 그 길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이 글을 쓴 오진영은 프리랜서 기자, 포르투갈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결혼식 전날 생긴 일』, 『알레프』를 옮겼다.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옛길처럼 정겨운 동네 아저씨

진관동 시립은평노인복지관 뒤편에는 커다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진관동의 오랜 기억들이 다 뭉개지고 없어진 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마운 존재다. 개발할 때 오르막 지대에서 밀어낸 흙들을 아랫길에 쌓아 올리는 바람에 나무는 몸체 상당부분을 땅에 묻어야 했으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꾹꾹하게 버티고 서 옛길을 지키고 있다. 이 옛길과 미루나무를 기억하고 알려준 이가 김종현 씨다. 김종현 씨는 지금은 마고정 308동 아파트가 들어선 기자촌 입구 삼거리에서 84년부터 삼거리식당을 했던 분이다.

두부장사에서 식당까지 진관동에서 보낸 세월

옛 이야기를 물으니 70년 1월 5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히 떠올리며, 총각시절 고양군 신도면일 때 구파발에 온 이야기를 한다.



시립은평노인복지관 뒤편 보호수 미루나무. 진관동을 기억하며 옛길을 지키고 있다. © 사진작가 혜영

전북 임실 옥구에서 인천으로 가 배를 탈 생각을 하고 상경했다. 외삼촌 가족이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터를 잡아 살고 있었다. 두부공장을 하던 삼촌이 배 타는 것보다 같이 일해 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제안했다. 젊은 데 뭘 못하랴 싶어 두부를 지게에 지고 진관내외리를 돌며, 종을 치며 팔았다. 2년 정도는 지게로, 그 다음에는 자전거 타고.

벌이가 좋았다. 한 달 월급으로 치면 7~8천원, 땅 한 평이 120원일 때 하루에 천원을 벌었으니 땅 10평 살 돈을 번 셈이라고 껄껄 웃는다.

73년 한국 여자 탁구가 사라예보에서 우승한 후 탁구 붐이 일자 북한산에 100만원 들여 탁구장을 개설했다. 큰 돈 들여 연 탁구장은 3개월 만에 쪽박을 찼다. 집 두 채를 순식간에 날린 셈이었다.

삼촌네 집에서 나와 삼립빵 센터 대리점 중도매상을 했다. 당시 삼립빵은 구멍가게에 빵만이 아니라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야채와 과일 빼고 전 품목을 대주었다. 친구를 잘못 만나 노름을 하니 다 남의 돈이 되었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아이들 네다섯 살 때 가장 힘들었다. 76년생 쌍둥이 낳매였다.

힘든 고비에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산을 좋아해 같이 다니며, 석유 버너에 끓여주는 음식을 먹더니 ‘맛있네, 음식을 해 봐’라고 권유한 것. 돈이 없으니 친구의 도움으로 가게를 얻었다.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라고 심하던 중 여동생 쪽 사부인택이 3일치 팔 순대를 만들어주고 갔다. 마장동 계시던 분인데 이북 분한테 배워 순대에 당면 대신 두부와 야채를 넣었다. 84년 10월 18일 삼거리식당이 문을 연 개업 첫날 3일치 순대가 다 나갈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그렇게 시작한 장사를 개발로

식당이 헐릴 때까지 20년을 했다.

동네 사랑방 같은 식당

북한산에서 식목일 행사를 치르고 은평구 공무원들이 단체로 왔다 가기도 하고, 고양에서 부군수가 왔다 가기도 했다. 그렇게 관에서 왔다 가면 흑시나 하고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장사가 더 잘되니 좋았다.

김종현 씨는 웬일인지 지방자치제에 부정적이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으니 별로 힘도 없더라. 옷놀이, 단합대회, 야외나들이 등 동네 사람들끼리 어울려 큰 규모로 치르던 동네행사가 언제부터인지 구의원 선거로 편이 갈라져 시들해졌다고 말한다.

그런 기억에도 불구하고, 김종현 씨는 호남 향우회 회장도 하고, 조기 축구회 회장도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식당이 사랑방 같았던 이유였다.

당시 조기 축구회는 다른 데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만났다. 연화사 절에서 물 떠 경성고등학교(현재 은평메디텍고등학교)로 가 뒀 후 하루를 맞았다. 이발관, 쌀가게, 구멍가게, 시장 사람들 등 자영업자들이다 보니 가능했던 일이다.

“그 친구들이 뿔뿔이 다 헤어지고 없어.”

가끔 불광동이나 고양 쪽으로 흩어진 옛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진관시장 상인들이 시장 안
오복탕 앞 골목에서
회의하는 모습

예전 같지 않다.

“아파트가 어디 갈 때는 참 편리해, 근데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여, 이 옷도 없고, 내가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 받아 본 적도 없고, 친구들 술 한 잔 하려면 전화로 겨우 연락이 되는 거지.”

김종현 씨는 예전 개발이 되기 전, 동네에서 죽 걸어가다가 담벼락 넘어 ‘어이, 술 한 잔 하지’ 하면 모여서 술 먹고 지냈던 때가 참 좋았다고 말한다. 아파트야 지하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면 그만이니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구조란다.

애경사 서로 챙기고, 장례도 집에서 치뤘

정이 많았던 동네였다. 아이들 결혼 등 애경사를 모르쇠하지 않고 서로서로 챙겼다. 행여 소식을 놓치고 전하지 않으면 외려 서운해 했을 정도다. 고향에서 모시고 와 함께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도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렀다. 누구는 시장 봐오고, 누구는 손님 접대하고 하는 식으로 동네사람에게 다 맡겨 놓았다. 이들을 이렇

계 동네 안에서 해결했다. 고향 장지에 ‘너도 나도 같이 가자’해서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해 함께 갔고, 꽃상여까지 댈 수 있었다.

“타관에 나가 살면서 꽃상여까지 맨 사람은 자네뿐이네.’라며 고향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지.”

김중현 씨는 지난 일을 말하면서 뿌듯해 했다.

개발과 함께 김중현 씨는 20년 장사를 접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이어받아 순대국집을 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쓰고 말았어.”

“지금도 그 생각 하면 찡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 간다 안내문을 붙일 때다.

“정이 들 때로 들었고, 돈을 못 벌었으면 모르되 다 죽어가던 사람이 몇 푼 건져서 아이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했으니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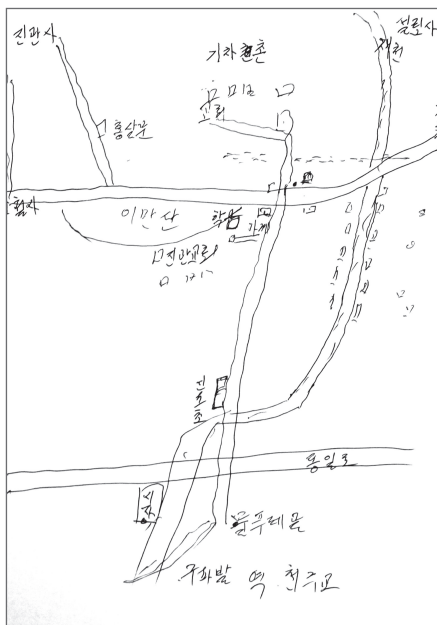
20년 동안 하루 한 그릇 씩 순대국을 먹고, 돼지 사골을 10시간 씩 우려서 순대국을 팔면서 산 시간들이었다.



예전 기자촌에 이르는 회화나무길.

주민이 그린 손지도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30년 진관동 동네를 누빈 전파사 아저씨

“외지인 가운데 나만큼 성공한 사람 없다고 해.”

1970년 진관동에 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왔음에도 ‘외지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진관동에서 나고 자라 뿌리내리고 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리라. 한 집안처럼 지내던 예전 친구들이 고인이 되기도 하고, 개발로 흩어지기도 했고, 은평뉴타운에는 훨씬 더 많은 새 입주민이 터 잡아 살고 있지만 말이다.



전라도 함평에서 태어나 58년에 서울에 올라왔다. 막 올라왔을 때 6개월 동안 냉차 장사도 했다. 한남동에 있다가 2년만 살다 가야지 하고

물푸레에서 본 진관동

신도읍에 왔다. 군대생활을 수색에서 하다 보니 이 일대가 낯설지 않았다. 고 2때, 박석고개와 기자촌, 신사동 언덕을 깎고 공사할 때 용돈 받는 재미로 친구와 함께 친구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해 본 경험도 있다고 한다.

“82년에 새마을지도자가 되었고, 새마을회장까지 맡아 8년씩 했지. 선관위원장 일도 9년이나 했어”

외지인이었지만 동네일에 발 벗고 나섰다. 그때부터 만나던 친목모임이 있지만 다 그만두었다.

“동네가 나빠서 그만둔 건 아니고 모임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파서…….”

은평뉴타운 2단지 앞 자투리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인사를 나누는 동네사람들이 많다.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날’ 잔치가 있는 날이라 길을 나서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은 탓이다.

“동네에서 전기 일을 하다 보니 이 동네 집 구조는 다 알아. 오밀조밀한 전기공사를 다 했어. 내 손 안 거친 집이 없어. 금성당 굿하는 집도 내가 손도 보고 했지.”

개발로 문 닫을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이동수단을 바꾸면서 진관동 일대를 누빈 시간이 30여년 세월이다.

“가게 모습도 있고, 먹서 고치고 있는 모습도 찍어놓은 게 있더라니까. 허허.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그랬나 봐.”

그때를 회상해 볼 수 있는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신기하다고 말한다.

“예전에 서울 시내 나갔다 은평경찰서 고개만 들어오면 공기부터

달라. 좋았지. 이만산 올라가 동네를 보면 이렇게 변했나 생각도 들고, 아파트가 되니 숨 막혀. 산에라도 가서 운동이라도 하니까 그렇지 삭막해.”

옛날을 회상할 때는 목소리가 들떠 있다 안타까움 때문인지 목소리가 잦아든다.

“옛날 그 당시로 개발만 해서 단독주택으로 살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은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아주 좋다고 하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먹고 살면 되었다 싶다. 강화도에 집 짓고 살고 싶다며 신경을 많이 쓰다 3년 전에 명을 달리한 친구를 보며 욕심 안 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교육을 받아 역촌동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 자원봉사도 한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다.

진관시장 뒷골목, 일명 색시집이다.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진관동 터줏대감, 15대가 산 원 토박이

김주한 진관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원 토박이 주민이다. 15대가 이곳 진관동에서 살았다. 거의 500년 세월이다. 토박이 주민들은 이 구동성으로 김주한 씨를 만나면 진관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차분히 만나서 조상 대대로 진관동에 살았던 세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음력 10월 1일 진관동 산신제를 지내던 날 잠깐 만났다. 이날 산신제는 김주한 씨 외에도 진관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자 예전 진관사 주지의 후손인 김영인 씨, 금성당 마지막 시봉자인 송은영 씨 등 원주민 10여명이 모여, 150명 주민들 이름이 적힌 몸소지를 태우며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

“10살, 15살 나이 때 어른들 심부름을 하면서 산신제 지내는 걸 봤지.”



산신제 모습.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한해 농사짓고 나면 제를 지냈다.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수령 5~6백년 된 노송 여러 그루가 있었다. 93년 노송은 고사했고, 그 씨앗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 96년 이를 지주 삼아 산신제비를 세웠다. 은평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산신제비는 소나무와 함께 우물골 8단지 정자 위쪽으로 옮겨졌다. 6.25전쟁으로 잠시 폐쇄된 적도 있었지만 제를 안 지내면 마을에 험한 일이 생긴다며 정성을 다했다. 돈을 추렴해 가마솔 길

어 돼지도 잡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잔치였다.

“산신제비는 내가 만들었다.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 지내는 방식을 알려주지 않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기 좋은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내왔지.”

80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주한 씨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신제를 지내려고 한다. 귀찮고 힘들어도 안 지내면 원주민들이 서운해 하고, 탈이 날까봐서다.

그린벨트 때문에 동네사람들 고통이 많아서 청와대며 건설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수시로 찾아다녔다. 92년엔 그린벨트를 해결해 보려고 구의원도 했다.

“몸쓸 혐오시설, LPG 가스 주입 등 못된 것만 이 동네로 보내. 내 몸 하나 불사르겠다는 공지를 갖고 나섰어. 선거에는 당선시킬 자신있으니 그린벨트는 책임지라고 했지. 정치인들 내 등쌀에 못 견뎠지.”



은평뉴타운 개발 전 2지구 모습

김주한 씨는 이명박 시장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뉴타운 계획이 나온 이야기를 하며 뿌듯해 했다.

“2005년 마을 사람들 다 이사 갈 때 학교 운동장을 빌려 돼지 8마리, 막걸리 한 트럭, 수건 2천장을 나눠주며 석별의 정을 나눴어.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지만 이 고장 못 들어오는 사람 많지 않겠어. 수건 쓰지 말고 기념으로 놔두라고 했지.”

“10%, 15%, 들어온 사람 얼마 안 돼. 동서남북에서 각 성받이가 들어와서 동네 형성이 안 돼.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면서 내 돈 써가며 단지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 틀을 만들어 줬지.”

지금도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아서 늘 바쁘다. 은평뉴타운 아파트는 아들딸에게 주고, 장흥에 별장식 주택을 지어 나가 살고 있지만 마을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옛 동네 모습 찾을 수 없어 아쉬워

찾잔 들고
오솔길 걷던
우리 집

“경치가 좋고, 시골동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온 거지. 눈 오는 날 커피 타서 들고 집 뒤 오솔길을 걷곤 했는데 아주 운치가 있었어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정덕(57년 생) 씨는 90년 경 독립문 창천동에 있던 작은 집을 팔고 그보다 넓은 집을 찾아 큰 아이 5학년 때 신도초 뒤편으로 이사 왔다.

늘 두 가구 정도 세를 주었다. 작은방에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남의 집 애도 봐주던 이다. 봄이 되어 새싹들이 나오는데 죽죽 뜯어버려 아이한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앞집 아줌마 무섭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시골 인심이었지. 김장도 같이 하고, 동네계도 하고 그랬지.”

집 뒤 이만산 자락은 예일, 선일, 대성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이었다. 담배도 몰래 피고 하는지라 봄, 가을 건조할 때 불이 날까봐 노심초사하곤 했다. 집이 철거되기 전에 아쉬워서 개나리 화단이며, 집 전경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는데 여적 그걸 가지고 있다며 보여준다.

아파트 적응하는 데만 5년

“아파트 적응하는데 많이 걸렸어요. 한 5년 걸렸나 봐요. 살다가 속이 터져 뛰쳐나와도 갈 데가 없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더 좋아요.”

춥지 않고, 산 밑에 낙엽 떨어지면 굽어다 볼 때고, 텃밭 돌보고, 계절마다 손 봐줘야 되는 게 없으니 신간이 편하다.

“길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이만산 올라가면서 옛날을 되새겨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위안을 삼는 건 성당 자리, 구파발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거 보면서 이 정도에 우리 집이 있었겠구나 생각하죠. 그것마저 없어졌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상전벽해 되어가지고. 완전 뭉개고 해서 흔적이 없어요.”

다행히 돈을 융통하여 들어오긴 했어도 개발 당시를 떠올리면 열불

이 난다.

“자기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겨우 사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았어. 집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평당 350~370만원에 팔고 나서 평당 1000~1200만원 주고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도둑이 따로 없더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어. 내 상식으로는 30평 땅 가져가 20층으로 올리면, 땅만큼은 주어야 경우인 거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목울대를 치고 올라온다.

“공중으로 둥둥 떠다니라는 것이냐.”

도로부터 확보하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길은 한정되어 있는데 은평뉴타운도 모자라 삼성, 원당, 벽제 뚫고 아파트들 짓는 걸 보면 이 나라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진관시장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물푸레골, 그 섬에 가고 싶다

“아저씨, 구파발동 가주세요.”

“물푸레골 가시나 봐요?”

“어디요?”

연신내역에서 택시 기사는 뭘 모른다는 투로 말했다. ‘물푸레골’이라니……. 21세기가 장엄하게 밝아오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골’이 웬 말인가 싶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동네에 물푸레 나무가 많아 오래 전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밀레니엄으로 떠들썩하던 그해 겨울 나는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에 흘러 있었다. 행정구역으로는 구파발동이었다.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나와 허름한 밥집과 전파사 사이에 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난 데없이 제법 너른 동네가 펼쳐졌다. 은평구를 병풍처럼 둘러싼 앵봉산의 동쪽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곳이었다. 주택가라고는 없을 것 같은,

서울 꼬트머리 중의 꼬트머리였다.

언뜻 보면 흔해빠진 서울 달동네의 분위기였지만, 조금 묘했다. 우선 마을 전체를 울창한 숲이 감싸고 있었다. 언덕 가장 높은 곳까지 집들이 짙게 들어찬 어느 달동네와는 달랐다. 나무가 있을 만한 곳에 나무가 있었고, 공터가 필요한 곳에 공터가 있었다. 달동네 치고는 길도 넓고 깨끗했다. 차량 통행도 적어서 길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더 자주 눈에 띄었다.

몇 세대나 됐을까. 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집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담장이 얹었다. 예의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판잣집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제법 그럴듯한 조경을 갖춘 ‘예쁜 집’도 여럿 있었다. 가난으로 균질화 된 달동네가 아니라, 모양도 분위기도 가지각색인 동네였다. 말하자면 가난의 무게를 한 손갈쯤 덜어낸 달동네였다고나 할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IMF 이후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스무 살 넘어 고향을 떠나야 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채 파주며 의정부 등 경기도 북쪽을 전전하다 1999년에 자리를 잡은 곳이 물푸레골이었다. 당시 다섯 가족이 전부 열 평이 될까 말까 한 방 세 개짜리 집에 전세금 1000만원을 내고 살았다. 비탈길에 지은 집이라 내부 구조가 좀 독특하기는 했어도, 어느 고단한 가족의 보금자리로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다. 무엇보다 방 세 개에 1000만원짜리 집의 존재는 당시에 도 무랄까, 몽환적인 축복이었다.

아내 가족에게 그곳은 적절한 보금자리였다. 경비 일을 하시던 장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물푸레골 옛 모습

인어른은 고양시 대자동 지구레코드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했고, 미대를 나온 처제는 지축역 인근의 화원에서 장식용 조각품을 만들었다. 전업 만화가인 아내는 달동네 특유의 고즈넉함을 마음에 들어 했다. 나중에는 처제의 남자 친구가 물푸레골 꼭대기로 이사와 한동안 살기도 했다.

물푸레골에 무슨 대단한 볼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하릴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다. 구파발역에서 물푸레골 꼭대기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20여분 정도(걸렸던 것 같다). 미로처럼 나 있는 골목들을 기웃거리다보면 1~2시간이 훌쩍 갔다. 예의 달동네가 그렇듯 골목은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고, 손에 잡힐 듯한 북한산 풍

경은 골목마다 ‘뷰’가 달랐다. 어느 꽃잎
 흩날리던 봄날 물푸레골 언덕에서 바라
 본 북한산 풍경은 오롯이 한 편의 ‘그림’
 으로 내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구파발역 쪽으
 로 내려가 신도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오
 래 된 유통구이(돼지고기 젓가슴살 구이) 골
 목에서 소주를 마셨다.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알기로 그곳은
 유통구이집이 몰려 있는 전국 유일의 골
 목이었다(이번에 찾아보니 유통구이 골목에서
 가장 오래 된 노포인 논산집 주인 아주머니가 은
 평뉴타운 개발로 쫓겨나는 바람에 천막농성을
 벌였다는 보도가 2006년 <은평시민신문>에서 나
 왔다. 다시금, 씁쓸해졌다).

진관시장의 순대와 떡볶이는 맛은 평
 범했으되 양이 푸짐했다. 24시간 문을 열었던 SK 가스 충전소 길 건너
 편 충주기사식당의 콩나물국밥도 맛있었다. 1980년대 분위기 그대로
 인 허름한 호프집도 두어 군데 있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고작 다섯
 집 정도가 불을 밝히던 흥등가도 그 근처에 뜬금없이 있었다.

나는 밤의 물푸레골을 사랑했다. 산등성이 너머로 별들이 솟으면
 하늘 아래 가까운 달동네는 금세 환해졌다. 물푸레골 언덕배기에서 바



서민들이 즐겨 찾던 진관시장 골목 안
 유통구이 전문 논산집.

라본 기자촌은 밤이면 마치 거대한 성탄절 트리처럼 반짝거렸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이 추운 날에도 기자촌 가로등 불빛에 마음이 따뜻해지고는 했다. 하늘의 별빛과 땅의 가로등 빛이 어울려 밤의 물푸레골은 늘 반짝거렸다.

당시 나는 서울 광진구에 살았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은 족히 걸리는 그 동네를 부지런히 드나들었던 이유는 물론,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물푸레골의 매력이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아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네를 거닐고 싶어서 나는 종종 서울 동쪽 끝에서 서북쪽 끝으로 먼 여행을 자처했다.

몇 년 뒤 아는 이 한 명 없던 은평구에 신혼집을 잡은 것도 순전히 물푸레골의 기억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평구에 산 뒤로도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물푸레골을 찾았다. 찬찬히 골목을 헤집고 다니노라면 고향마을을 찾은 듯 포근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푸레골의 매력은 ‘비현실성’이었다. 오래된 마을이 하나둘씩 헐려나가는 서기 2000년의 서울에서, 그곳은 안개에 가려진 섬이었다. 어찌어찌 서울 꼬트머리의 외딴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 곡진한 이들이 그곳에서 숨어 살았다. 나는 그 동네를 꿈꾸듯 배회했다.

지금 그때 물푸레골은 사라지고 없다. 기자촌 야경을 감상했던 언덕배기에는 카톨릭 성모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고, 유통구이 골목이 있던 자리는 아파트의 숲이 되었다.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 역시 죄다 이 동네를 떠났을 것이다.

사라진 물푸레골의 풍경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건 뜻밖에 한 편의 영화다. 2004년 개봉한 <안녕, 유에프오>에서 시각장애인 이은주와 시내버스(기자촌에서 답십리까지 운행하는 157번) 기사 이범수의 잔잔하면서도 애뜻한 로맨스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물푸레골이다. 영슈퍼, 강화슈퍼, 미니슈퍼 등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하던 구멍가게의 간판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작품이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우연히 물푸레골을 지나치다가 그 동네의 풍광에 반해 영화의 무대로 삼았다고 한다.

물푸레골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지만, 실은 나 역시 <안녕, 유에프오>의 감독처럼 외지인에 불과했다. 내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풍경들이 어쩌면 그곳 주민에게는 불편한 기억인지도 모르겠다. 허나, 모든 사라진 것들은 아름답게 마련이다. 내 청춘의 한 자락이 뜨겁게 남아있는 곳이기에 지금도 나는 물푸레골을 지날 때면 묘한 가슴떨림이 일고는 한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면, 물푸레골 언덕배기에서 바라보던 기자촌의 불빛과 그 시절의 내가 간절하게 그림다.



이 글을 쓴 이오성 씨는 『시사인』 기자다.

물푸레 골은 물푸레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부터 이곳에는 물푸레나무가 많이 자랐고 또 그 질이 좋아 이웃 구파발 대장간에서 도끼, 호미, 낫 등 농기구에 쓰이는 자루로 인기가 대단하였다.

— 이성영, ‘재미있는 은평이야기’ 중에서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3대가 진관동 토박이 가족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골목들

연신내 불광지구대에서 뉴타운 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기자촌 왕순대집이 있다. 아버지가 하던 업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 순대국을 만든다.

식당 주인 정아 씨는 진관동 우물골에서 나고 자랐다. 진관시장에서 기자촌 삼거리 입구까지 가게 이름들, 골목들, 주변 집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세 번 이사 다니는 동안에도 늘 그 언저리였고, 고등학교 때 진관동 313번지가 우리집이 될 때도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땐 공동화장실을 썼어요.”

“이 골목에서 다방구, 오징어썰하고 놀았죠.”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기자촌 아랫마을 모습

“이쪽 길 따라 산에 오르면 말이랑 양이랑 돌로 깎아놓은 곳, 잘 다듬어진 무덤이 있었어요. 올라타고 놀았죠.”

동네에서 놀던 유년의 기억이 풋풋하다. 정아 씨 남편도 451-13번지 동네사람이다.

성격이 무난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같은 동네사람으로서 공감이었다 보니 시어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나 보다. 92세인 시할머니가 모 씨 성으로 토박이다. 2004년 구에서 낸 ‘은평구 토박이 이야기’ 책에 보면 ‘모 씨’ 성 진관동 원주민이 꽤 있다.

효자리에 모 씨 일가가 많이 살았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홀로 된 시할머니는 피붙이를 찾아 친정 가까이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아 씨 주선으로 시어른 내외를 만나 뵈 수 있었다. 왕순대집에서

보려다 2시경인데도 손님이 많아 근처 불광보건분소 산아래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 세 번씩이나 당해

시어머니는 72년 1월 진관내리 상림골로 시집을 왔다. 농협 다니는 남편 월급만 보고 살기엔 딸린 식구가 많았다. 못자리골 입구 상림골에 1200평 땅이 있어 블록을 쌓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소를 키웠다.

“구청에 누가 찢었던 모양이야. 블록을 다 헐더라고. 산 짐승을 어떻게 해. 삼시 세 끼 먹여야 되잖아. 밤에는 쓰러진 블록 엇비슷한 사이에 넣어주고 키웠지.”

그러다 견디다 못해 지금 지축리 기지 자리에 세를 얻어 소를 키우다 몇 년 후 법원리로 옮겼다.

소 키우면서 1천평 땅에 옥수수를 재배해 사료로 쓰고, 무, 콩 등 안 지은 게 없다. 한양주택 자리에 당시 물이 잘 들어와서 300평 가량에 못자리를 썼다. 한양주택이 들어서면서 평당 300원에 보상금 90만원 받고 시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림골 집이 방 두 칸에 허름한 데다 못 하나 못 박게 하던 시절인지라 새로 들어서는 한양주택이 참 부러웠다. 보상금 안 받고 대신 들어갈 수 없냐며 구청까지 찾아가봤다고 한다.

그 몇 년 후 방호벽을 쌓는다며 이젠 살던 집이 헐리게 되었다. 군은

시보다 보상이 좀 나왔지만 험한 꼴을 겪었다.

돈이 부족해 집을 못 옮기고 있는데 깨질만한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더니 지붕 먼저 올라가 기왓장을 내리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그래서 이사 온 곳이 진관동 451-13번지다. 400만원 보상금 받아 평당 7만원에 80평을 사서 집을 지었다. 겨우 땅 사고 집 지은 셈이다.

“그렇게 집 짓고 22년 사니까 또 개발한다 해서 세 번째 쫓겨났어요. 평생 한 번이나 겪을 법한 일을 세 번씩이나…….”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한다. 상림골 집 헐릴 때 여기만 못 하겠냐 싶어 친정인 안성 쪽으로 가고 싶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향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며 진관동을 뜨면 큰 일 날 것처럼 해서 주저앉았다. 지금은 갈현동에 살고 있다.

“다시는 데마다 쫓겨나니까 내 생애 또 한 번 당하지나 않을까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다.”

살던 집을 잃고 난 상처가 깊다.

진관동 토박이 어르신

시아버지(46년생, 68세)는 신도초등학교 29회 졸업생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창들 만나는 것 같아요.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시어머니가 타박할 정도로 동창들과 교류가 잦다. 대부분 진관동 토박이들이고, 진관동, 불광동, 덕양구 등에 산다. 신도초 8인회는 그중 더 각별하게 지낸다.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구파발시장 모습.

신도면에 단 하나뿐이던 병원 인제의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형제갈비를 하는 이, 상림골에서 오랫동안 통장 일을 봤던 목욕탕 집, 100세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이 등 이야기보따리가 많다. 카페 안이 시끄럽고 시간도 많지 않아 밤새워 들어도 좋을 것만 같은 토박이 신도초 동창들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

“신도초등학교 역사가 깊지. 나 다닐 땐 목재건물이었어.”

“고양중학교와 고양농고밖에 없었어. 십리 길을 자전거 타고 창릉천 뚝방길을 다녔지.”

세월을 거슬러 자전거를 타고 창릉천을 지나는 소년이 어른거린다.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죽포동에 내 손으로 신혼집 짓고 여태 살았지”

우물골 2단지는 이말산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개발로 패인 이말산 산자락이 아직도 붉은 흙인 채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5년 이말산을 우리 산으로 가꾸자는 뜻을 모아 ‘진달래 심기’ 행사를 했었는데 진달래를 심었던 곳이 지척인 듯싶다. 아파트 방문은 처음이다. 족두리봉이 멀리 보이는 거실에서 고00 씨(78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채소 농사 지어 영천시장에 내다팔고

몇 대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광동 새장골에 대대로 살았다. 형님과 열심히 일해 2천~3천평 밭을 일궈 토마토, 줄임 고추, 가지 등 채소를 재배해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도매로 내다 팔았다. 6남매로 식구들

이 많아도 다 못 지으니 머슴을 둘씩이나 두었다. 지금 6남매는 다 판 데로 나가 살고, 큰 댁 조카들만 새장골을 지키고 있다.

65년, 스물다섯 되는 해, 장가들면서 당시 신도면 진관외리던 폭포 동으로 분가했다. 두 칸 방을 직접 지었다. 열 집이나 되었을까 드문드문 집이 있을 때다.

“경부고속도로 날 때 거기서 일 했어. 공사 끝날 때까지. 중장비를 다뤘지.”

자부심이 묻어난다. 건설부 소속의 회사였다.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고 몇 년 더 있다 일이 별로 없어 나왔다. 취직이 안 되는 데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해서 그 일은 접었다.

“외지로 나가서 건축일도 하고 집에서 밭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옛 폭포동 모습.

이를 먹었네.”

자식 키워 손자들이 군대 가서 이제 곧 제대할 나이니 여한은 없다.

폭포동에다 향나무를 많이 심었다. 자그마한 거 만 주 정도를 사다가 울창해질 때까지 돌보며 가꾸었다. 나무 심어 팔면 자식 공부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다. 폭포동 연못 앞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향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은평경찰서 앞 동산이 보인다.

그린벨트에 묶여 당한 세월

“문도 흠 문이고 흠벽집이야. 겨울이면 추우니까 문에 얼음이 하얗게 얼었어. 방바닥은 뜨거워도 밤에 잘 때면 코가 시려서 이불을 코까지 덮고 잤어.”

집 개량도 해야 하고, 아이들 커 가니 방도 늘려야 하고, 화장실, 부엌도 내고 싶고, 없는 살림에 세를 더 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집 앞에 모래만 있어도 쫓아 들어와 뒹달하니 참 피곤한 세월이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때문이다.

“가까스로 몰래 집을 손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구청 직원이 달려와. 아예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돈만 주면 그냥 가. 헐어버리려면 아예 헐든가, 돈 쥐어주면 괜찮고……. 그게 아주 나빴어. 법도 아니야, 땀기는 놈이 법이지.”

그린벨트 해제 될 때 기뻐졌다고 여쭙니 한편으론 기쁘데 한편으론

기분 나빴다는 답이 돌아온다. SH 공사가 보상할 때 논밭이라고 평당 200만원을 준다 하니 거저 가져가는 것처럼 억울했다. 세월이 흐르면 서 채소농사 지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 어찌 해보고 싶어도 그린벨트 때문에 농지로 묶여 손도 못 댔는데 농지라서 적게 준다니….

“논이라고 싸게 달라니, 저희가 농사지을 거야. 농지로 쓴다면 몰라도 고층아파트 올렸잖아. 우리 땅은 평평해서 밀 필요도 없었어.”

당신 땅이었던 곳을 돌아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공영개발의 뒤에서 땅을 갖고 있고, 재입주한 원주민도 이런 억울한 심정이라는 게 직접 만나보지 못 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린 그나마 집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들어왔지만 집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잖아. 못 들어왔어. 개울가 쪽으로는 계다가 국유지야. 건물 값만 받아갖고 어디 가기도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래도 유지였지.”

30호, 대략 60가구가 살던 동네다.

폭포동 개울에서 김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은평경찰서 앞에 샘말이라고 있어. 그곳에서 김장배추 들고 와서 씻고 가곤 했다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북한산 바위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 장관이다. 여름이면 동네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즐겨 찾았다. 여름 더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폭포동 개울.

위 몸보신용 개고기가 빠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은 아이들이 먹을 감는 놀이터이자 김장도 담고, 빨래도 하던 장소였다.

고 씨 아내는 산후 조리하던 겨울에 개울의 얼음을 깨 기저귀를 빨아주던 시어머니를 떠올린다.

“나무 땀지. 소나무 청솔가지가 잘 땀어. 향기가 그렇

게 좋다던데 그때는 향기 좋은 줄도 모르고, 아궁이가 그렇게 좋은 줄도 몰랐지. 그냥 사는 게 그거니까…… 아궁이에 불 지피고 그 불을 끌 어내 미역국도 데우고…… 개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어, 도끼로 얼음을 깨 기저귀를 빨고 손이 파래져서…….”

나무를 하러 삼각산까지 올랐다. 지고 내려오기 힘들어 뽕뽕 묶어 굴리기도 했다. 연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질이 안 좋아서 고생도 했다. 나무에서 연탄으로 그리고 기름보일러로 시대가 바뀌면서 난방, 취사의 방법이 달라져 온 50년 세월을 폭포동 신혼집에서 다 겪어냈다.

“삼형제 키우는 데 쌀 한 가마, 라면 한 박스, 곰표 밀가루 한 포대가 한 달 식량이었지. 베이킹파우더만 넣고 만드는 영양빵을 지금은 뻗뻗

하다고 안 먹을 테지만 아이들이 잘 먹었어. 먹는 거로 차별할 수 없어서 셋집 사는 아이들까지 같이 먹으려면 세 판씩은 찌냈지.”

고 씨 아내는 아이들 키우는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공부만 하라 그랬던 거 같은데 장성한 아들들은 파 모종내려면 힘들었다고 기억한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고양군이다 보니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고 싶어 신도초등학교가 아니라 갈현초등학교로 아이들을 입학시켰다. 지금 와 생각하면 서울 중학교가 무에 대수라고 괜히 아이들 고생시켰다 싶지만 말이다. 폭포동에서 갈현초등학교라니. 얼마나 먼 길이었겠는가?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 연신내에서 올라오는 길에 드러누웠더라. 다행히 세 들어 사는 고향년 아이가 발견하고 업고 와 주었다.

20년씩 한 집에서 세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진배없었다. 서로 등기대어 험한 세월을 견뎌 준 이웃이다. 이제 노부부 둘이서 40평 넓은 아파트에서 사니 그때보다 행복할까? 고 씨 아저씨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바깥 경로당에서 찾는다며 나간다. ‘집’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한참 생각해 본다.

나의 살던 동네는, 진관동 내 고향

마을과 자연이 준 풍요로움 되찾고 싶어

북한산초 오가던 길, 내 감수성의 원천

진관동에서도 북한산 아래,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여기소는 내가 태어나 여태껏 살아온 곳이다. 변화가 크지 않았던 작디작은 마을인데 이 곳 역시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혜영 씨가 살던 옛집

도로가 확장되고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또 일부 마을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최근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인심도 변하였고 마을의 모습만큼이나 변화된 내부 공동체에도 균열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실감이 굉장히 커

개발 이전의 마을모습을 떠올리면 요즘도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수록 내 나침의 위로가 되었던 건 애써 옛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 했던 것. 그리고 개발로 상한 마을을 다니며 남겨지고 버려진 모습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상상해 보고 사진으로 기록하며 마음을 다독였던 것 같다. 내가 들려줄 진관동 여기소와 그 주변의 이야기는 아마도 살아오며 추억하는 마을의 모습과 일상들이 될 것이다.

우리 동네 여기소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여기소라는 마을 이름에 대해서 마을 어른한테 그 유래를 들어보고 발표 하라는 숙제가 있었다. 나는 누구랄 것도 없이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던 할머니에게 마을 이름이 정해진 이야기를 들었다. 동화책에 빠져들 듯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있는데 현재 알려진 설화와는 조금 다르다.

예전 이 마을에 살았던 선비와 마을의 기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당시의 관례 상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주변의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기생이 마을에 붉게 솟은 산까지 쫓겨 올라갔다가 더 물러서질 못하고 산의 중턱에 있던 연못에 투신을 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 기생을 기리며 이곳에 있었음을 기억하고자 여기소(女妓所)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알려진 설화는 내용도 다르고, 다른 의미의 汝基沼(여기소)로 쓰이고 있다.

이 마을은 서울에서도 드물게 김씨로 이뤄진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아빠에게는 외가동네로, 할머니가 6.25 전쟁으로 인해 창성동을 떠나 함께 살아가던 친인척을 이끌고 이 곳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 어른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사문화라던가 김장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풍요로운 유년, 북한산초등학교의 기억

서울에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적은 수의 학생들로 이뤄진 학교를 꼽아 보자면 아마 몇 안 될 것이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북한산 아래 자락에 안기어 있고, 상곡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옆으로 흐르며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바로 서울북한산초등학교. 당시 학년 당 두 반으로 전 학년이 다 알고 지낼 정도였고, 학교 인근의 효자리, 싸릿마을, 여기소, 지축동 등의 이웃마을에서 나고 자란 또래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또 형제자매들이 선후배이기도 했다.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친구들끼리 쪼르르 화장실로 같이 몰려 다녔다. 겨울이면 주변이 아침 일찍 줄을 서서 받아오던 조개탄으로 난로를 피웠다. 그 모습은 변했어도 아래 위 운동장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과 큰 운동장 주변에 세워진 돌탑과 아름드리나무는 여전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미술수업 시간에 수채화 그리기를 하고



북한산 아래 자락에 안겨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산초. © 사진작가 혜영

점토로 조물조물 무언가를 만들었고 체육시간에는 멀리 뛰기 시합을 벌이기도 했는데…….

봄엔 나물을 캐기도 하고, 여름이면 남자 애들은 깊은 웅덩이의 초록빛 계곡물에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철마다 익어가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산으로 냇가로 다니며 자연을 충분히 누렸다. 학교 입구에서부터 교문까지 양쪽으로 늘 어선 벚나무에 꽃이 피어 지기 시작하는 봄에는 눈앞이 하얗게 가릴 정도로 흐드러지게 나리는 꽃잎 사이로 다람쥐가 지나가고, 여름 장마철에는 학교에 올라가는 굽이지는 길 왼편의 논에서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개구리들이 오른편의 계곡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편에 밟히고 으스스해진 걸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 사이사이를 일제히 총총 걸음으로 걸어갔다. 비 오기 직전



내시묘역길, 시시때때로 모습이 달라져 등하교의 재미를 더해 준 길. ©사진작가 혜영

신호를 주는 제비가 발 앞에까지 내려앉으며 잽싸게 다시 튀어 오르듯 비행할 때의 신비로움, 등굣길 갑작스런 비에 ‘에라~ 모르겠다.’하며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으며 발가락 사이를 타고 올라오던 촉감 등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울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이다.

학교를 오가던 숲길이 내시묘역길로

초등학교 2학년 까지였었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군사문화의 잔재로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는 마을 마다 6학년 학생을 선두로 동네 학생들을 불러 모아 다 함께 줄을 지어 등교를 시키는 지침이 있었다. 등교를 해서는 다시 2열로 정렬을 하고 태극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각자의 교실로 향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유롭지 않았던 등굣길이 지루해 우리는 종종 여기저기로 새로운 등굣길을 만

들어냈다. 그 중 하나가 지금의 북한산둘레길인 ‘내시묘역길’이다.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하고 묘한 재미가 있던 숲속 길이었다.

지금처럼 방향표시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발길로 겨우 다져진 좁은 숲길이 나 있던 그 때에는 어린 마음에 숲 속 길에 들어서면 숲의 음산함과 높은 나무들, 고요함이 오싹하기도 해 친구들끼리는 무서운 숲 속 이야기를 소문내기도 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숲의 모습에 등학교를 하는 재미가 더했던 길이다.

마을과 숲이 이어지는 북한산둘레길을 보면 시민들에게 서울의 소중한 마을의 정경과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둘레길 조성의 취지와는 달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업지가 대대적으로 조성되거나 이용자들의 소음과 쓰레기로 조용한 마을이 앓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 속이 상한다.

서울의 변두리인 진관동 여기소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내 감수성은 키워졌다. 마을과 사람,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균등한 삶을 고민할 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순식간의 개발 이후에 파괴된 공동체는 쉽사리 이전 모습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영영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옛 기억을 추억하며 속상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위로가 되는 ‘실천적 행동’은 뭘까 고민하는 밤이다.



이 글을 쓴 혜영 씨는 진관동 여기소에서 나고 자랐으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진관동 마을 이름의 유래

상림골

옛날 이곳에 뽕나무가 많아서 생겨난 지명이다. 현재 은평뉴타운 1지구가 있다.

못자리골

예전 이곳에 있던 어느 절 경내에 커다란 연못이 있어 사람들이 ‘못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후 절은 없어지고 연못만이 남아 ‘못절터’라고 부르다가 못자리골이 되었다고 한다.

향토사학자 박상진 씨의 문화해설 자료에 따르면 이말산에 있는 윤용의 묘표에 1631년 ‘양주군 신흥리 택사’에 묘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택사(澤 못택, 절 절사)’는 ‘못절’을 뜻한다. 1916년에 작성된 고지도에도 연사리(淵寺里)라는 표기가 보인다. 연사리의 ‘연’은 ‘택’처럼 ‘못’을 뜻하는 한자어다. 현재 상림마을 7단지가 있는 곳이다.

마고정(馬雇亭)

조선시대 후기에 역마고립제라 하여 민간의 말을 세내어 국가에 빌려주던 고마청(雇馬廳)이 와전되어 ‘마고정’으로 잘못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은평뉴타운 2지구 3단지에 고마청이 있었다고 해서 유래한 지명이다.

우물골

은평뉴타운 2지구 2단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 수백 년 된 향나무가 있고, 향나무 옆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만병통치의 약수로 유명했다고 전해진다. 향나무가 옆에 있어 물맛에 향내가 늘 배어났다고 한다.

제각말(祭閣里)

조선 25대 철종 임금이 조부인 은언군의 묘를 마을 뒷산인 이말산에 조성하고 많은 제각을 세웠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잿말(齋村)

철종 임금이 조부인 은언군의 시체를 지내러 왔다가 이 일대 성황당 고개에서 편히 쉬었다고 하여 식영고개라는 지명이 생겼고, 재말이란 바로 식영고개 넘어 마을, 즉 재 넘어 마을이라 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혹은 영산군파의 재실이 있었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한다. 1916년 고지도에 ‘재촌’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탑골

조선시대 탑이 많아 생겨난 지명이다. 홍창사와 자씨각이 있다.

새로
동지를 튼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새로 동지를 틈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은빛초 아이들과 학부모들, 금암문화예술제 열어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은평뉴타운 9단지, 10단지 사이 금암문화공원에서 만난 어떤 마을
분의 말이다. 아이들 노래 소리에 끌려 들어와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
기가 아름다워 지켜보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금암문화공원의 풍경은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
들,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2013년 11월 23일(토)
오후 1시, 평소에는 한적한 이 공원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잔치가 열
렸다.

공원 곳곳에 수십 점의 아이들 그림, 직접 손으로 만든 오색 깃발과
아이들을 닮은 얼굴에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이 입혀진 허수아비가 있
다. 금암기적비 옆에 조그맣게 마련한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하
고 연극을 하고 있다. 무대 주변에 돛자리를 깔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삼삼오오 앉아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놀이기구 근처에서는 엄마들이 따끈한 국물과 음식을 준비해 공원을 찾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금암문화예술제’ 깃발과 현수막이 보인다. 금암문화공원 근처에 있는 은빛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과 지역예술가들이 금암기적비의 가치를 찾아보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지역보물의 의미를 나누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마련한 자리다.

금암문화예술제의 주인공 금암기적비黔巖紀蹟碑

금암문화예술제가 열린 금암문화공원에는 금암기적비가 있다. 이곳은 조선조에는 ‘검바윗말’ 또는 ‘금암리’로 불리던 곳이다.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한양의 관문으로, 중국을 오가는 사신이나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었다.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증조할아버지인 숙종의 탄신일(8월15일)을 맞아 서오릉에 있는 숙종의 능과 명릉(사적 제98호)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



금암기적비 ©사진작가 혜영

에 금암 덕수천(지금의 창릉천)변에 머물렀다. 정조는 지난날 할아버지인 영조가 이곳 금암(검은 바위)에서 했던 옛 일을 회상하며, 영조가 남긴 자취를 둘러보고 그때 일을 기리기 위해, 세월의 풍상으로 쓰러진 금암참사를 새로 짓고 빈터를 닦아 직접 글을 지어 비를 세운다. 1781년(정조 5년)의 일이다.

‘금암기적비’의 비문에는 영조가 세자 시절, 그 곳 역사의 관리가 소도둑을 잡았다가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도둑을 관청에 알리지 않고, 타일러 보낸 일을 목격하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이것을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조는 농가에 머물며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고, 50여년 간 세상에 많은 은덕을 베푼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인연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당시 이곳 금암은 의주로 가는 역참이었는데, 지금은 참사는 없고 금암기적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금암기적비는 1978년에 서울유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되었다.

금암기적비로 마을예술제 준비한 은빛초등학교

뉴타운으로 진관동의 역사와 문화가 희미해진 삶터에 2010년 은빛초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혁신초등학교인 이 곳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주목되는 학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획한 금암문화예술제는 가을부터 토요일마을학교를



아이들의 작품과 공연, 학부모의 공연으로 이뤄진 금암문화예술제.

통해 준비되었다. 은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나오고 생각들이 모아져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토요마을학교는 은빛초등학교 학생들 40여명의 신청을 받아 세 모듬으로 나뉘어져 마을예술제를 준비하였다. 세 모듬은 예술제의 홍보를 맡은 디자인 모듬, 공연무대를 위한 무대 만들기 모듬, 금암기적비의 내용을 표현하는 연극 모듬이었다. 학생들은 원하는 모듬을 선택해서 각 모듬의 전문분야 선생님들과 함께했다. 학교선생님들이 아닌 전문예술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은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지역운영위원으로 젊은 예술인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금암문화예술제는 5주 동안 준비되었는데 금암기적비를 찾아가 그 뜻을 이해하고 각 모듬별로 기획에 들어갔다. 디자인 모듬에서는 아이들이 못 입는 옷을 가져와 예술제 때 쓰일 깃발, 허수아비를 만들고, 마을사람들에게 알릴 홍보지를 만들었다. 무대 만들기 모듬에서는 목공실에서 아빠들과 함께 똑딱거리며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를 만들었다. 연극모듬에서는 금암기적비에 담긴 내용으로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연습했다. 5번의 짧은 모임으로 만들어졌던 마을예술제는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던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고,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뉴타운에 이사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번 금암문화예술제를 준비하면서 마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자긍심이 생겼어요.”

마을예술제에 참여한 학부모의 말이다.

“재미있게 놀면서 금암기적비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해요.”

이번 금암마을예술제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나 함께 즐기는 사람들 모두 앞으로도 계속 문화예술제가 만들어지길 원했다.

은평의 오래된 미래 한양주택

묻혀있던 역사를 새로운 문화로 삼고자 한 계기가 된 금암기적비는 뉴타운 개발로 사라진 한양주택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었다. 한양주택은 작은 마을 이름이다. 북한산 백운대를 배경으로 1만7천 평 대지 위에 단아하게 자리 잡은 214채의 단독주택 단지였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공



한양주택 전경.

동성명 이후 북쪽 대표단 방문에 대비해 전시용 주택단지 조성을 지시해 1978년 완공했다.

이후, 이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1996년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집들마다 낮은 담장으로 뻗어나는 넝쿨나무들, 감나무, 텃밭들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다. 동네아이들은 넓은 골목에서 오가는 동네 어르신들 속에서 뛰어놀 수 있었다. 공기 맑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이

곳은 소박한 정이 끈끈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두터운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이었다. 도심에서 도시 같지 않은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느끼려 많은 이들이 찾기도 했다.

2005년 서울시 뉴타운 개발이 한양주택까지 들어왔을 때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개발을 반대했다. 개발의 이익보다 지금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발은 진행되었다. 주민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놓은 곳임에도 개발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사라지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개발이 있기 전에 은평사람들과 지역문화를 찾아다니는 답사시간이 있었어요. 금암기적비, 하마비, 한양주택도 그 당시 둘러 다녔고요.



‘강홍구, 사라지다 - 은평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2001-2012’의 일부. 한양주택

사람 냄새나던 아름다운 마을 한양주택이 사라지고 비닐하우스 틈에
있던 금암기적비, 하마비가 금암문화공원으로 남았네요. 금암문화예
술제로 오래된 마을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삶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 어우러지니 좋아요. 우리 마을의 역사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으
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네잔치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행사로 금암기적비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금암문화공원을 찾는
동안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을예술제를 함께 한 은평 주민의 말이었다.

새로 동지를 틈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육아 공동체 숲동이 놀이터 이야기

북한산 의상봉이 보이는 백화사 입구 여기서 마을에서 숲동이 놀이터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의 회원이면서 숲 해설 자원활동을 하고 있던 몇 명의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생태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어른들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이들을 숲에서 맘껏 뛰놀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해 보자.”

그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준비모임을 거친 후 “숲’에서 아이‘동(童)’들이 마음껏 뛰어 논다는 의미의 <숲동이 놀이터>” 문을 열었다. 2009년의 일이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숲동이 놀이터>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엄마들과 함께 지낸다.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을 하는데 첫째에 7명의 아이들이 활동했고, 한 명의 아이가 졸업을 했다. 매년 함

계할 새 친구들을 더 맞아들여 10여명의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숲에서 열심히 놀고 있고, 더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꼬마숲둥이’도 하고 있다.

숲둥이 놀이터는 생태 육아를 함께하고자 모였고 그 활동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숲둥이 놀이터는 ‘엄마도 행복한 육아’를 생각한다.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육아를 꿈꿔요. 혼자서는 힘든 육아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더 행복할 거라는 공감과 믿음이 있어요.”라고 숲둥이놀이터 초기 멤버 괴물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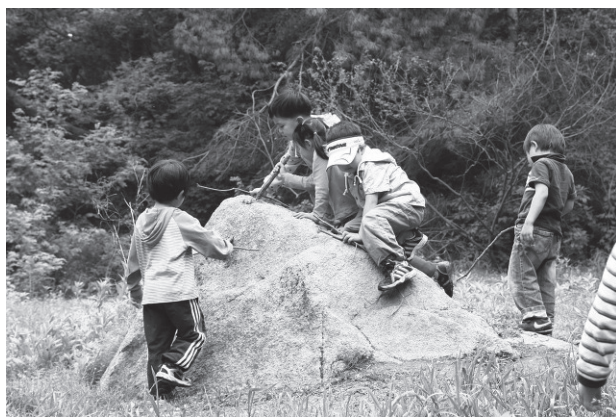
놀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한 뼉씩 커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어른들은 지켜보기, 장난감은 자연에서 찾기, 안전사고 대비 및 양해, 엄마들의 행복, 생태보전시민모임 정회원’이 바로 그것이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논다. 그러면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자란다. 아이들끼리 놀며 아이들끼리 관계를 맺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물과 놀며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어른들과도 관계를 맺고, 어른들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아이들의 활동과 놀이는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일어나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숲에서 맨발로
걷는 숲둥이 아이들

▶ 숲 친구 바위



어른들은 이러한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봐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북돋워 준다. 엄마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숲에서 철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 한다. 숲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엄마들이 어릴 때 했던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놀다보면 아이들이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아 힘들어 하기도 하고, 넘어져 다치고 굶혀 속상한 일도 있다.

이 모두가 마음도 몸도 자라는 과정이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하다.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따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 품앗이로 오카리나, 우쿨렐레, 기타 등등의 악기를 배운다거나,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생활 속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만들고 나누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활동하니 자연스레 풀과 나무, 숲에 사는 생명들에 대해 알고 싶어 공부를 하기도 한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도시생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요. 내 생활과 삶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더군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들 곁에서 맘껏 놀며 함께 자라는 걸 느껴요.”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라 엄마인 나도 한 뼘씩 성장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에서 놀이는 무궁무진

숲동이 놀이터의 주 활동지는 여기서 마을에서 산기슭을 살짝 넘어 북한산 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 옆 너른 숲 속 터였다. 아이들은 입구에 알맞게 기울어져 있는 소나무에 줄줄이 올라타 기차타고 여행을 했다. 터 가운데에 자리한 바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면 술래의 자리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은 바위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주위에서 잘도 놀았다. 봄이면 버드나무 꽃이 피고, 쇠뜨기가 울

라오고, 한쪽에선 풀들 사이로 미나리도 돌아난다. 엄마들이 미나리를 뜯어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북한산과 이말산, 갈현산 등 이곳저곳을 다니며 생강꽃차, 목련꽃차, 진달래 화전, 쑥전, 버찌열매, 팔배나무열매, 산딸나무열매 등 철 따라 자연의 맛도 보았다. 무덤 주위에 피는 할미꽃이 다칠세라 맨발로 걸기도 하고, 신갈나무 잎을 따 신발 속에 깔아보기도 했다. 숲의 동물들처럼 맨발로 걸으며 폭신하고 시원함을 느껴보기도 하고, 여름이면 진관사 입구 계곡에 발 담그고 창릉천 물고기를 쫓으며 더위를 잊고, 뻘꾸기, 매미 소리를 들었다. 가을에 도토리과 다람쥐도 만나며 멋진 단풍들 속에서 논다. 겨울이면 눈도 받아 먹어보고 눈발을 달리고, 마을길 옆 개울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신나했다. 숲에서의 놀이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고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잘도 찾아 논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아가는 듯하다. 자연이 그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잎 하나를 따더라도 조심스레 따게 되고, 꽃을 따더라도 벌과 씨앗을 생각하고, 벌레나 지렁이, 달팽이가 지나가면 기다려주거나 안전한 곳에 살짝 옮겨주기도 한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공동체

텃밭 활동을 하며 농사도 지어 상추쌈도 먹고, 감자도 찌먹고, 배추와 무를 길러 김장도 해 먹는다.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심고 가꾸어



- ▲◀ 이말산을 오르는 숲동이
- ▲ 숲동이들의 질 체험
- ◀ 숲동이 난지캠프장에 가다

함께 나누니 먹을거리도, 생각도, 생활도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숲동이에선 엄마들이 함께 만드는 것도 많아졌다. 헌 옷이나 자투리 천들을 모아 가방, 인형 등의 소품을 만든다거나, 얼룩진 옷이나 손수건에 천연염색을 하고, 지끈으로 바구니, 가방 등 생활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목공 등을 함께하며 재미를 찾고 생활도 변화해 가고 있다.

엄마들은 숲동이 활동 뿐 아니라 서로의 집에 마실도 다니며 편하게 마음 터놓고 지낸다. 그러다보니 저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경험과 정보, 관심사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레 지역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들은 어울려 놀며 점점 자신의 물건도 내주고 서로 챙겨준다. 옷이든 책이든 서로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 졸업을 하고도 동생들에게 물려줄 것들을 들고 온다.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된 ‘숲동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숲에서 모여 노는 ‘오후의 숲동이’ 활동을 한다. 그야말로 알아서들 잘 놀고 있다. 그 옆에서 엄마들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면서 말이다.

숲동이 활동을 함께 했던 엄마들은 아이들 때문에 숲동이를 만났지만 ‘함께 하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한다.

숲의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 함께 기대어 공생하고 있고, 자연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고 자연은 스스로 조화롭게 자연을 지켜오고 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대신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누며 사는 지혜를 배울 거라고 믿는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은평뉴타운에 널리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새로 동지를 틈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못자리골 생태연못 옆 물푸레 북카페

저녁 여섯시, 11월의 밤은 일찍 찾아와서, 물푸레 북카페의 큰 유리창 바깥은 벌써 어둠이 짙다. 보통 때라면 물푸레 북카페에는 손님도 뜸하고, 하루를 정리하느라 분주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카페가 쉼도 넘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이들로 꽉 찼다. 요즘 ‘햇’하다는 드림캐쳐(아메리카 원주민의 주술품으로 잠자리 근처에 걸어 놓으면 악몽을 잡아준다는 물건)를 만들고, 물푸레 기타선생님의 연주도 들을 수 있는 ‘캔들데이’를 즐기러 온 주민들이다.

기타 선생님은 카페를 가득 메운 주민들에 깜짝 놀라셨나 보다. “아파트 단지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칭찬한다.

‘한 시간 정도 전등 대신 촛불을 켜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행사의 취지를 전달하고, 드림캐쳐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카페를 나서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니 캄



감한 밤이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2주일 전부터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자연물도 채집하면서 바빴던 활동가들의 마음도 비로소 놓이는 듯하다.

이말산 밑의 ‘생태연못’ 옆에서 물푸레 북카페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자는 뜻을 모으고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생태육아공동체인 ‘숲둥이놀이터’를 함께 한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카페다. 처음엔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태리에 서 마시던 커피에 못지않다’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2년 전보다 활동가도 늘어 14명이나 된다. 카페에서 쓰는 커피는 열대우림을 가능하면 덜 파괴하는 유기농방법으로 생산하고, 생산자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주고 구입한 공정무역 커피원두를 사용한다. 다른 음료들도 가능하면 합성첨가물이 없고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국내산 친환경 재료를 쓰고 있다. 재료비가 일반 커피점보다 훨씬 비싸지만, 수익을

물푸레 북카페 캔들데이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저렴한 편이다. 손님으로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재료 맛있는 커피는 기본, 인문학, 예술, 생태와 살림의 문화 만들어 가는 곳

물푸레는 그저 좋은 재료로 만든 음료를 파는, 아이 데리고 와도 편한 공간에 그치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곳이 되고 싶다. 인문학과 예술, 생태와 살림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아침 열시쯤 느린 걸음으로 카페에 도착하면 막 추출해 낸 커피향과 함께 다양한 문화강좌도 만날 수 있다. 그림그리기, 천자문이나 논어 같은 동양고전, 선뜻 손이 가지 않던 서양고전문학들을 선생님과 같이 읽기,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강좌도 열린다. 전문가들의 기꺼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재즈싱잉이나 비폭력대화 같은 강좌는 어느 곳

에서는 접할 수 없는 수준과 깊이를 갖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을 더 많이 접하게 해주고 싶어 마련한 ‘꼬마농부’나 ‘숲속자연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다. 올 겨울엔 카페의 햇별을 찍며 동네 아줌마들이 함께 덧신을 뜨는 뜨게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원래 ‘못자리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동네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논과 웅덩이가 많아 개구리와 땀꿍이, 잠자리들의 낙원이었던 곳이다. 햇빛 아래서 꿈꾸듯이 날아다니던 커다란 푸른빛 밀잠자리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일대가 다 아파트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살 곳을 잃게 된 땀꿍이들과 개구리를 위해 최소한 이나마 남겨놓은 곳이 바로 물푸레북카페가 깃들어있는 아파트 옆 생



버스를 타고 은평뉴타운에 들어오는 길에 만나는 북한산 전경이 아름답다. ©사진작가 혜영

태연못이다.

물푸레는 가지를 짓이겨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게 된다는 나무다. 물푸레가 물을 푸르게 물들이듯, 물푸레 북카페가 못자리골의 사람들 마음과 삶을 푸르게 물들이고, 이 동네를 원주민이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돌아와 깃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물푸레 북카페는 상림마을 742동 1층에 있다.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7723번 버스를 타고 생태공원에서 내리는 방법도 있으나 연신내에서 7721을 타고 오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버스를 타고 은평뉴타운에 들어오는 길에 만나는 북한산 전경이 아름답고, 버스에서 내려 개울을 따라 걸어올 때 보이는 산자락 풍경이 그만이다.

새로 동지를 틈 사람들, 진관동 마을살이

진관동 마을 주민이 만든 ‘은뉴 밴드’

진관동에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다. 이 밴드의 리더 신충식 씨는 신사동 산새마을이 고향인 은평 토박이다. 부모님은 아직까지 산새마을에 살고 계신다. 직장 때문에 일본에 나가 살다 은평뉴타운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동네사람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 카페에 ‘밴드 모집’ 공지를 띄운 이도 그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멤버들이 연신내, 합정동의 지하 연습실을 빌려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어울려 놀다 보니 이젠 가족 같다. 강남, 목동에서 온 사람, 녹번동에 오래 살았던 사람 등 그동안 살던 동네도 제각각이었고, 하는 일도 섬유 무역업, 골프 사업, 영화 PD, 건축설계사,

수학교사, 주부 등 천차만별이지만 은평뉴타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 어엿한 동네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것.

“일본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한 축제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했죠.”라고 신충식 씨는 말했다.

“6개월간 열심히 연습하고 나니 ‘무대’가 생각나더군요. 은평누리축제에서 참여자 공모를 할 때 찾아갔죠. 동네 축제나 행사에서 자주 불러주기를 바라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이들의 소박한 꿈이다.

“밴드 한다고 술만 먹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가족끼리도 자주 어울리고 만나니 분위기가 좋아요.”

마을에서 만나 또 다른 가족이 된 이들처럼 은평뉴타운 마을모임들이 봄날 새싹처럼 이곳저곳에서 움트기를, 그래서 아파트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은평뉴타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본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북한산 자락에 세 진관이 있었으니...

진관사 올라가는 길은 사시사철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다.

가만가만 조용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열정이 넘치는 어머니 같은 사찰이 바로 진관사이다. 북한산 자락에 폭 파묻힌 듯,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호국 사찰로, 전통 사찰 음식의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템플스테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평뉴타운이 자리 잡으면서 북적이는 진관동, 그 명칭의 유래가 바로 이곳 진관사에 있다. 고려 초기, 천추태후의 살해위험을 피해 절로 귀의한 훗날의 고려 8대 임금 현종, 그에게 숨을 곳을 주고, 육신은 물론 정신의 공간을 내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진관 대사였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민심을 어루만지고, 하나로 모아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초조대장경이요, 진관사 건립이었다. 1000여년전 북한산 자락에 세 개의 진관이 있었으니, 그 하

나가 진관사요, 둘이 진관대사요, 셋이 진관동이었던 것이다. 이후 진관사는 구국의 염원을 담은 사찰로 왕실의 행사를 전담하는 도량으로 민심을 어루만지는 자애로운 도량으로 역할을 해왔다.

송유억불의 정책을 펼친 조선 시대에도, 이성계를 비롯, 세종대왕, 세조 등 대부분의 왕들이 한번씩은 와 본 사찰이 바로 진관사였다. 이들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민심을 달래는 제들을 지냈는데, 그 중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수록재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왕실 행사 중 하나였다. 세종 대왕 때는 그의 싱크탱크였던 집현전 학사들의 쉼터이자 연구실이었던 독서당이 진관사에 마련되어, 한글 창제의 한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이후 조선의 대표적 사찰로 그 임무를 다하던 진관사는 여러 차례의





◀ 진관사 템플스테이

▼ 국행수륙대제 바라춤



왜란과 호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시한번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민족의 도량으로 역할을 다했다. 당시 3.1 운동의 한 축이었던 백초월 스님은 절의 자금을 이용해 군자금을 보내는 등 활발히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2009년 칠성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에 탄 태극기, 독립신문 등 당시의 유물이 발견돼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6.25 때 유엔군의 폭격으로 대부분의 불사가 불에 타 사라져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쇠퇴일로를 걷던 진관사가 새 천년을 맞던 1963년(999년 되던 해) 비구니 스님, 진관스님을 만나게 되고,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담은 도량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된다.

2006년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문을 연 진관사는 다양한 국가 행사에서 사찰 문화와 음식의 중심에 서, 우리의 맛과 멋을 알리는 한편, 내고장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해, 진관사와 진관동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고, 지공예 규방, 수예,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템플 스테이 등을 새로이 시작, 고즈넉한 산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삶이 팍팍할 때, 마음이 궁핍할 때, 나라가 흔들릴 때,
늘 그 중심에서 너른 품을 내어준 진관사,
진관사가 진관동에 있어 참 좋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우리 동네 산,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말산 荻茺山

진관동 한복판에 있는 이말산은 동네 뒷산이자 이 일대 녹지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집에서 오솔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만나는 산이었고, 어렸을 때 무덤과 상석을 타고 놀았던 재미난 놀이터였다.

은평뉴타운이 만들어진 후 새로 입주한 주민들에게도 이말산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파발역 인공폭포에서 입곡삼거리까지 이어져 있어 아파트 어느 곳에서나 올라가기 쉽고, 해발고도 132.7m로 정상부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만한 능선길이다. 아이들의 숲놀이터로, 어른들의 산책길로 손색이 없다.

“학교 파한 후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간단한 먹을거리를 싸들고 올라가서 실컷 놀다 왔더라. 다른 아파트에서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 이런 숲이 가까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맘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아이 키우는 주민이 동네 라디오 토크에서 한 말이다.

은평구는 은평누리축제 때 인공폭포에서 하나고등학교 방향으로 트레킹을 한 후 진관사에 이르러 사찰음식 시연회를 둘러보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옛날 진관사를 찾아가던 사람들도 이 길을 이용했을까? 도심 한복판에서 산자락을 넘어 고즈넉한 작은 사찰 진관사를 만나는 느낌이 남다르다.

왜 이말산이라고 부를까

동네사람들은 흔히 ‘이말산’이라고 불렀다. 2005년 향토사학자 박상진 씨는 이말산 묘역 무덤을 살피던 중 완산 이씨 묘역의 이시회 비문에서 ‘揚州荊茱山乾坐之原(양주이말산건좌지원)’ 즉 ‘양주 이말산에 동남쪽 방향으로 뒤횈자리를 잡았다.’는 문구를 발견한다.

묘역이 조성된 해는 1674년이고, 113년이 지난 1787년에 후손이 묘비를 세운 내용이다. 이곳이 ‘이말산’임을 알려주는 산 증거였다. 330년 넘게 자리했고, 이곳이 이말산으로 불렸다는 걸 알려준 이 묘역은 안타깝게도 은평뉴타운 공사로 2008년 이장했다.

이말산(荊茱山)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연유했을까? 물푸레나무과 식물인 말리(茱莉)는 1미터 정도 되는 나무로, 꽃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신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재스민 차다. 혹시 예전에 말리화(식물 도감 표기 만리화)가 이 산에 있었을까? 지금 이말산에서 만리화를 찾을

수 없으니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말산이란 이름이 말리화에서 나온 게 아닌지 추측해 본다.

성저 십리 바깥

조선시대에는 '성저십리'라고 해서 사대문 안 도성에서 십리 거리까지는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묘를 쓸 수도 없었다. 은평에서는 최고개인 갈현동까지가 성저십리에 해당했다. 그러다보니 박석고개가 성저십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고, 이말산 일대가 성저십리 바로 바깥쪽이어서 뗏자리로 많이 쓰였다. 이말산에 사대부와 내시, 상궁묘, 중인의 묘 등이 산재한 이유다.



동자상들 © 홍기원

문인석, 동자상 등 이곳저곳에 흩어진 석물들도 많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가을 낙엽이 질 무렵 얼굴을 내미는 염화미소를 띤 석물, 낙엽 더미에 쓸쓸히 누워있는 비석들이 있는 이 말산을 거닐다 보면 옛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에 서 놓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에 잠겨볼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유실을 염려한 탓인지 인근에 조성하려는 탐골 생태공원에 비교적 상태가 좋은 석물들을 따로 모아 놓은 점이다. 다양한 느낌을 주는 그 석물들은 원래의 이말산 자리에서 그 의미가 오롯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를 일주한 김득련

이말산에는 사대부, 중인, 내시, 상궁의 묘가 있어 옛사람의 자취를 볼 수 있다. 구파발 인공폭포 바로 뒤, 이말산 등산로에서 200미터쯤 오르면 왼쪽으로 조선시대 유명한 역관 가문 우봉 김씨 묘역이 있다. 이곳에 묻힌 김득련 이야기로 역사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1896년 4월 2일 오전 10시, 인천항을 떠나는 러시아 군함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일행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러 가는 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의 일행이었다. 수행원인 윤치호는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개화파의 거두로, 중국과 미국에서 10년을 지내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했다. 민영환

은 중국어 통역관으로 김득련,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김도일, 비서로 손희영을 두었고,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 스테인이 이들을 안내하기 위해 함께 했으니 일행은 모두 여섯 명이였다. 조선을 대표해 러시아를 예방하는 외교 사절로는 조출한 편이었다.

민영환 일행이 러시아로 가게 된 속사정은 대단히 복잡했다. 일본인 강패들이 일본 공사 미우라의 지시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 황후를 살해한 게 불과 6개월 전의 일이었다. 두 달 전인 1896년 2월 11일에는 일본의 만행에 피눈물을 삼키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했다.

러시아를 나라를 빼앗으려는 일본에 맞서 도움을 줄 유일한 우방이라 생각한 고종은 명성 황후의 조카뻘인 민영환을 러시아에 보내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 했다.

4월 4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일행은 홍콩을 거쳐 인도양으로 빠져 나가려 했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 배를 놓쳤다. 일행은 1주일 뒤인 4월 11일, 영국 상선 엠프레스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야 했다. 아시아와 유럽만 다녀오려던 것이 세계 일주로 바뀐 것이다.



러시아사절단 일행. 앞줄 왼쪽 김득련, 윤치호, 민영환.
뒷줄 왼쪽 김도일, 가장 오른쪽 손희영.

4월 29일 캐나다 밴쿠버 항에 도착한 일행은 대륙 횡단 철도를 따라

기차를 달려 5월 6일, 뉴욕에 도착했다. 일행은 5월 9일 뉴욕을 떠나 대서양을 건넜다. 일행이 영국·네덜란드·독일·폴란드를 지나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5월 20일이었다.

5월 26일 크렘린 궁의 우즈벤스키 사원에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열렸다. 민영환 일행도 대관식 참관을 초청받았지만, 갖을 벗지 않아 사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모스크바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대관식을 참관하러 온 각국의 외교 사절들이 벌이는 외교전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중국 청나라는 이홍장을, 일본에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파견했는데, 둘 다 중국과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실권자였다. 이들은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벌여 각각 ‘러-청 비밀협정’과 ‘로바토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사실상 공동 지배하기로 밀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민영환은 이를 알지 못했고, 조선을 적극 도와 줄 듯 보였던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아해했다. 민영환은 6월 13일부터 외무 장관 로바토프를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러시아에서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민영환 일행은 7월 14일 페테르고프 행궁에서 니콜라이 2세를 알현해 고종의 친서를 전하고 답서를 받았다. 민영환 일행은 8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기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다음,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마차로 갈아타고 실카 강에서 배를 타고 흑룡강을 따라 내려와 10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10월 21일 한강을 거슬러 마포포구에 내렸다. 203일간의 세계 일주가 드디어 끝난 것이다.

세계 일주가 끝난 뒤 민영환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해천추범(海天秋帆)』이라는 일기 형식의 기행문으로 남겼는데, 김득련이 쓴 『환구일록(環璆日錄)』과 비슷하다. 김득련이 기록한 것을 몇 군데 고쳐 자기 이름으로 냈기 때문이다.

김득련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회를 한시 136수로 읊었는데, 『환구음초(環璆吟艸)』라는 제목으로 1897년 일본 교토에서 출판하였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읊은 시집”이라는 뜻이다.

김득련은 뉴욕의 불야성을 보고 느낀 감회를 이렇게 말한다.

“시가지는 4·5층으로부터 10여층에 이르기까지 고운 빛이 어지러이 비치고, 밤에는 전기와 가스 불빛이 밝아서 별과 달빛을 빼앗는다. 거리 위에는 다리를 놓고 철로를 만들어 기차가 다니게 했는데 이르는 곳마다 역시 그러하다. 사는 사람이 3백만에 가까운데 어깨를 서로 비비고 수레는 바퀴가 서로 닿아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노래 소리와 놀이가 사철에 쉬지 않아 ‘늘 봄날같은 동산 속에 근심하는 곳이 없고, 불야성 안에 극락이 있다’는 말과 같다.”



김득련묘 전경(왼쪽), 이말산 우봉김씨 묘역 전경(오른쪽) © 향토사학자 박상진

한편, 김득련은 청계천의 여섯 번째 다리인 광고 부근에 거주하는 역관들이 결성한 육교시사에도 속해 있었다. 서울에 살면서 낮은 직급의 벼슬을 지내거나 기술직에 종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거나 자신들만의 문화를 누렸던 조선시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인 위함문인이었던 것. 이말산에 묻힌 홍우택, 홍우필 두 형제도 이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 위향의 4걸로 불렸다 하니 이말산에 잠든 사람들이 조선시대 새롭게 나타난 중인 문화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 상궁, 내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비와 무덤

은평뉴타운 8단지 215동 옆에서 샛길을 따라 산자락을 조금만 오르면 조선 숙종 때 정5품 상궁 벼슬을 지낸 상궁 임씨의 묘표가 쓸쓸하게 놓여있다. 주 등산로에서는 두산위브 8단지 방향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진관초 방향으로 몇 걸음 옮겨 눈에 잘 띄지 않는 샛길로 들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산 한 가운데였으나 산자락이 많이 잘려나간 탓인지 아파트가 지척이다.

상궁은 궁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임상궁은 13세 때 궁궐로 들어가 당시 일곱 살인 현종(숙종의 아버지)을 모시기 시작해 왕궁에서 43년을 살면서 현종의 비인 명성태후를 모셨고, 명성태후가 죽자 인조(현종

의 아버지)의 계비 장열태후를 모셨다.

숙종은 임상궁을 이모와 같이 여겨 마지막으로 모시던 장열태후가 죽자 그녀를 밖에 나가 살도록 했다. 임상궁은 19년 동안 명안공주(명성태후의 셋째 공주) 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집사로 지내다 75세에 병으로 죽었다.

발견 당시 묘비는 쓰러진 상태였는데 묘비에 새겨진 글을 통해 궁인들의 출신 내력, 궁중 및 사저로 나온 후 삶을 마치는 과정 등 궁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 뒤편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 진관근린공원 표지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등산로 오른쪽 아래에 궁중의 음식을 감독하고 내시를 총괄한 상선 노윤천의 묘가 있다.



◀ 임상궁 묘표(2010) ©향토사학자 박상진

▼ 발견 시 쓰러져 있던 임상궁 묘표(오른쪽)



노윤천은 명종 대에 활약했던 내시다. 역사 기록 속 첫 등장은 명종 즉위년에 공신으로 봉해졌다는 내용이다. 을사사화로 윤임 일파를 제거할 당시 그 명을 전달했다는 것. 단순히 명만 전달했는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명종 초기 내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노윤천은 명종 3년 필화사건에 휘말린다. 당시 권력층이 사관들의 소신이 담긴 열람이 금지된 춘추관 소장 시정기를 마음대로 열람한다.

노윤천 묘 전경 ©향토사학자 박상진

여기에 ‘왕이 사슴고기를 좋아해 진상되는 산 노루를 보고, ‘산 노루 열 마리가 어찌 사슴 한 마리를 당하겠느냐’ 했다. 주상이 어려 상중임에도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권력층은 발끈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정기 내용이 을사사화로 죽어간 사람들을 충신으로 묘사해 비위가 거슬렸던 차다. 이런 정황을 사관들에게 알려준 게 식사를 총괄하는 상선 노윤천이라고 의심을 받아 취조를 받는다.

이후 노윤천에 대한 기록은 없다. 본의 아니게 필화사건에 휘말려 이전과 같은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한 건 아닐까. 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묘표도 매우 작은 것도 그런 추측을 하게 한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도심 속 옛터, 굿당 금성당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숲에 가려 놓치기 쉽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재, 소박한 우리의 모습이 담긴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숨바꼭질하듯 찾아보고 마음속에 담아보고 눈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구과발역 2번 출구에서 구과발 성당을 끼고 800m 가량 올라오면 고즈넉한 한옥 굿당, 금성당을 만난다. 금성당은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신 굿당이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여섯째아들이자 단종의 숙부로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한 후 32세에 비운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 전국의 무속 신앙에서는 금성대군을 신격화하였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많은 무당들이 그를 영험한 신으로 모셨다. 금성당도 그 중의 하나다. 원래 서울에는 진관외동 외에 망원동과 월계동에도 금성당이 있었으나 1970~1980년대 도시개발에 의해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유일하게 진관동의 금성당만 남았다.

금성당은 마을주민들과 무당의 굿을 하기 위해 지어진 공공시설이

었으며, 건축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전통적인 당집 양식이다. 전국의 많은 굿당들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과거 굿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금성당은 매우 중요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신도와 각종 무구류(巫具類)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그 희귀성과 함께 건축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개발 과정에서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었다. 2008년 중요민속자료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 8월부터 내부도 공개하고 있어 금성당 안을 둘러볼 수 있다.

금성당은 본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채에서는 신을 모셨고, 안채에서는 굿당을 관리하는 시봉자가 생활했다. 전체가 마루로 이루어진 본채의 대청 뒤편에는 벽감을 두어 신을 모셨다. 본채 앞에는 행



고즈넉한 금성당 안 ©사진작가 혜영



- ◀◀ 금성당 마루 문을 통해 본 뒷뜰
- ◀ 일렬로 늘어선 방문을 통해 본 내부
- ▼ 단정한 금성당 돌담 ©사진작가 해영



량을 두었고 본채 동쪽으로는 ‘ㄱ’자형인 안채를 두어 시봉자가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안채는 중부지방의 일반 민가와 같은 ‘ㄱ’자형이지만 동쪽 방을 ‘전(田)’자 형태로 크게 지은 것이 금성당만의 특징이다.

한옥의 느낌을 오롯이 간직한 곳당을 둘러보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 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정성스레 쌓아진 담장과 낮은 담장 안으로 들여다보이는 대청마루와 디딤돌, 그리고 마당, 나무대문을 밀고 들어와 마당에 서면, 아담한 창들, 마루 창을 통해 보는 뒤뜰 전경이 고즈넉하다. 정갈하고 깔끔한 창호지 문, 한 치 빈틈없이 일렬로 연결된 방과 방을 잇는 문, 그 문을 통해 비쳐 들어온 햇살, 격자 문 틀을 통해 통으로 보이는 방들, 그 느낌이 좋다. 이때쯤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한옥집이 주는 위안이다.

금성당은 이처럼 한옥 건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마을곳당이었던 본래의 모습을 살려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판 곳을 하는 마을축제의 공간으로도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형 문화재로서만이 아니라 민간 신앙이었던 전통 곳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화의군, 이곳에 묻히다

진관동 우물골에 세종의 여섯째아들인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당집인 금성당이 있다면 인근 제각말에는 세종의 아홉째아들인 화의군의 죽음을 기리는 묘가 있다. 북한산둘레길 마실길 구간 초입으로 진관생태다리가 있는 곳이다. 금성대군과 화의군 두 분 다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종친이라는 점에서 진관동 문화유적으로서 뜻이 깊다.

화의군 이영은 세종과 영빈 강씨 사이에 태어난 서자다. 단종의 복위운동에 가담하여 세조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사육신 박팽년의 매부이기도 하다.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면서 세조가 화의군을 시험할 요량으로 불러들여 “성삼문을 파직 처리함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화의군은 묵묵부답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전라도 금산에 유배되었다고 한다.

1457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지금의 영주)에서 단종복위를 하려다 죽임을 당한다. 영월에 있던 단종도 교살된다. 이때 화의군은 세조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로 인해 사약을 받는다. 1460년, 그의 나이 36세였다.

화의군의 주검은 전라도 금산 땅에 묻혔다. 나중에 복권이 되어 1552년(명종7년) 전라도에서 한양 서쪽 진관리,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으며, 영조 때 충경공의 시호를 하사 받는다. 순조 때 홍살문을 하사 받아 나름의 위용을 갖추었다.

화의군 묘역에는 사당인 충경사와 제실 그리고 신도비와 홍살문이 있다. 묘역은 선조-영조간의 묘제와 석물 장식을 잘 보여주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한때 개발로 인해 화의군묘의 충경사와 입구에 있는 홍살문은 누타운 3지구로 수용되어 훼손 위기에 처했었으나 서울기념물 24호 지정되어 제자리를 지켰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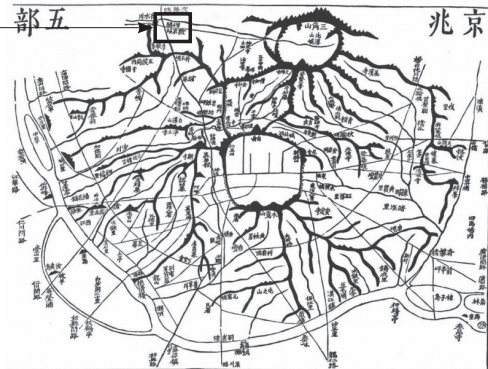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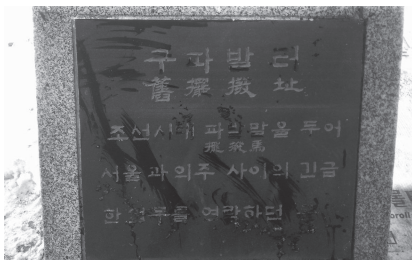
구파발을 아세요

3호선 지하철 역 이름으로 낯익은 구파발(舊把撥)은 ‘옛 파발’이란 뜻이다. 구파발역 4번 출구의 구파발 터 표석에는 “조선시대 파발 말을 두어 서울과 의주 사이의 긴급한 업무를 연락하던 곳”이라고 되어 있다.

파발은 임진왜란 후 신속한 군사 통신을 위해 도입했으며, 보발(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과 기발(말을 타고 가는 것)이 있었다. 구파발의 명칭은 금

대동여지도 경조오부도에 표시된 금암참

구파발터 표지석



암기적비가 있는 ‘금암참지’에서 연유했다. 1861년 김정호 선생이 도성을 중심으로 인근 서울을 산줄기를 따라 그린 경조오부도에 보면 영서역과 함께 금암참이 표시되어 있다.

파발제도가 있기 전부터 조선시대에는 각 도에 역참(驛站, 역과 참)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말을 대 주도록 했다. 영서(영서)역과 벽제관 두 역 사이에 있던 금암참은 간이역인 참에 해당한다. ‘한참을 가야 한다’ 할 때 ‘참’이 바로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25리나 30리를 한 ‘참’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참을 먹는다’ 하는 말도 역과 역 사이의 간이역인 참에서 유래하여 정규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구파발에 위치한 금암참은 서발(서쪽의 발)로서 사신 왕래가 잦고,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말을 타고 전하는 기발을 두었다. 은평에서는 10월 누리축제에서 ‘파발제’를 하며 구파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동네

밭둑길 지나 만나던 탑골 자씨각 불상

뉴타운 개발 이전에는 시골길 같은 골목길을 몇 번 돌고, 작은 밭둑길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었던 탑골 자씨각, 통일로 확장 공사로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씨각 안에 모셔진 석 보살입상은 세월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무



자씨각 석불 ©홍기원

심한 듯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예전에 석불입상에 치성을 드리던 상이 치워지자 풍만한 느낌이 더 살아나고 섬세하고 예쁜 옷주름이 나타났다. 이마가 좁고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 얼굴 표현, 높게 솟은 보계와 장식이 달린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전기(10세기~11세기) 불상의 특징이라고 한다. 서울지역에서 보기 드문 작품이어서 서울지역과 중부지역 고려석불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2010년 진관동 석 보살입상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한편, 2008년 진관동 석 보살입상 근처 탐굴 발굴과정에서 ‘삼각산 청담사삼보초(三角山靑潭寺三寶草)’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다. 신라 때 문장가 최치원은 신라 효공왕 8년(904)에 저술한 범장화상전이라는 한 승려의 전기에서 "해동의 화엄의 큰 학문 장소로는 10 군데가 있으니 한주의 부아악(負兒山) 청담사(靑潭寺)도 그 중 하나다"(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漢州負兒山靑潭寺也)라고 적었다. 여기서 부아악이



자씨각(왼쪽), 청담사터 기와(아래) ©홍기원



바로 북한산이다.

청담사는 신라시대 화엄종에 속한 10대 사찰 중 한곳이지만 문헌에만 나올 뿐 그동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명문 기와 발견으로 이곳이 ‘부아산 청담사(負兒山 靑潭寺)’일 가능성이 커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발굴에서는 80평에 약 1톤 가량의 와편이 나왔다.